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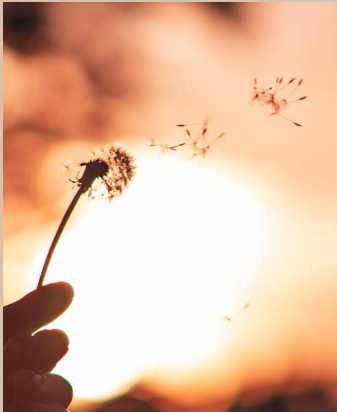
2022.12.28

Newsletter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 HIS Message



## Devotion



## HIS Spotlight



## General News



## ES News



## MHS News



## Dormitory News



## Counselor's Office News



## Library News



## Nurse's Office News



잠언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Proverbs 9:10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and knowledge of the Holy One  
is understanding.

# HIS Message



## 복 있는 사람

### Blessed Ones

올해 우리 학교는 초등학교에서 19명, 중학교에서 37명, 고등학교에서 46명의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저는 각 과정을 마무리한 학생들에게, 특별히 학교를 떠나는 12학년 학생들에게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과 함께 다음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첫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마치 광야에서 죽어가는 나무가 시냇가에 옮겨 심어져 시냇물을 흡수하면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이 강력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둘째, 복 있는 사람다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우선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길을 부러워하거나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제시하는 것들이 아무리 달콤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것을

By 백하민 | 교장  
Dr. Hamin Baek · Principal

This year we have 19 elementary school students, 37 middle school students, and 46 high school students graduating from HIS. To the students who have finished each course, especially to 12th graders who are about to leave HIS, I first would like to say, “Well done! You have worked so hard.” And then I want to give them a few words based on Psalm 1:1~3.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of sinners or sit in the seat of mockers.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hich yields its fruit in season and whose leaf does not wither. Whatever he does prospers.*

First, remember that you are the ones blessed by God. You are blessed not because you have done something extraordinary. Just as dying trees in the wilderness are brought to life by being planted by a stream and absorbing it, you too have received this blessing only in Jesus Christ as you have believed in Him. Wherever you go and whatever you do, even if you sometimes fail and fall, please hold on to this powerful identity. In any circumstances, proclaim to yourselves, “I am a person blessed by God!”

Second, actively live a life worthy of a blessed person. Do not envy or pursue the path of the wicked, sinners, and mockers. No matter how sweet and beautiful things

따라가면 마치 소돔 성에 거주했던 롯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시들게 될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밝은 낮뿐 아니라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인도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복 있는 사람답게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 맺는 삶,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파송하는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실하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부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누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한동글로벌학교의 모든 졸업생 되기를 기원합니다.

the world without God proposes may appear, if you seek them, your souls will wither just like Lot who lived in Sodom. Instead, please keep close to God's law or God's Word. Remember and meditate on the Word of God not only in the bright days but in the dark nights of your lives as well. The Word of God will strengthen and guide you so that you can overcome any difficulties and live as men and women blessed by God. And then each of you will live a life that bears fruit and prospers as promised by God.

Now, as we are sending you out to the world, I entrust each and every single one of you into the hands of our faithful Lord. I hope and pray that all of you graduating from HIS do not forget that you are blessed ones and actively live lives worthy of such so that you can enjoy and share God's blessings and glorify the Lord.

# Devotion



##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

**Blessed To Be a Blessing**

민수기 6:22-27 · Numbers 6:22-27

By 앤드류 김 | 중고등 성경 교사  
Mr. Andrew Kim · MHS Bible Teacher

저는 미국에 자라면서, 예절로 통용되는 특정한 전통들을 배웠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어릴 때부터 누군가 재채기를 하면 “축복합니다” 혹은 “주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예의 바른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대방 혹은 제가 재채기를 할 경우, 서로 같은 말을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말의 유래는 재채기를 할 때 몸에서 악한 기운이 나간다는 생각에서 기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근에 있는 누군가가 “축복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재채기를 했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코가 간지럽기 시작하더니, 결국 참을 수 없는 재채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의 재채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후 그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의 재채기에 관심이 없었고 “축복합니다”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없자 저는 매우 놀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한국 사람들은 예의가 없네”와 “왜 재채기를 했는데 아무도 축복을 해주지 않을까?”였습니다. 저는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바랐던 행동이 한국의 문화에는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자라며 들인 습관이 있어 종종 저도 모르게 누군가 재채기를 할 때면 “축복합니다”라고 말해주곤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스라엘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축복”으로 알려져 있으며 예배를 마치고 전 축도에 자주 사용됩니다.

24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 여호와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첫째로, 위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Growing up in America, I grew up learning certain traditions and things that were considered good manners. One of the things we learned from a young age was to say “Bless you” or “God bless you” when someone sneezed. It was considered polite and good manners. So I grew up saying “Bless you!” to people when they sneezed and also experienced people saying it to me when I sneezed. It didn’t matter if you were in a place with complete strangers, it was still considered polite and good manners to respond to someone who had sneezed with this phrase. Interestingly, this phrase came about because people used to think that when you sneezed, an evil spirit was leaving your body so saying “God bless you!” was a way of protecting someone who sneezed and anyone in their vicinity.

I still remember the first day I sneezed when I arrived in Korea. I was riding the subway and my nose started to itch and I knew what was coming: a big sneeze! So I let out a big sneeze and then to my surprise, I was greeted with...absolute silence. I felt surprised and shocked that no one even looked up to acknowledge my sneeze and no one responded with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Bless you”. My first thoughts were “Man, Korean people are so rude!” and “Why is no one blessing me after my sneeze?” I wanted to be blessed. But I soon discovered that this was not part of Korean culture and got used to it. But I still instinctively say “Bless you” when I hear someone sneeze to this day because it became so ingrained in me growing up in the US.

In today’s passage, God commanded Aaron to bless the Israelites with this blessing which has become known as the “priestly blessing” and is also used as a benediction to conclude worship services.

24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25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26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가 모든 축복의 주체라는 것과 모든 축복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니고 있는 것과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야고보서 1:17에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보다 문제에 집중합니다. 한 때 저의 멘토는 하루를 시작할 때, 나의 인생의 축복 중 최소한 3개를 세어보라고 도전 주셨습니다. 매일에 대한 제 태도와 관점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받은 축복을 세어 보는 시간을 가질 때, 주어진 것들에 대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 지 알게 되며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축복”이라는 용어에 매우 다른 생각과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차원(돈, 소유물, 인기, 성공 등)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의 문제는 모두 일시적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축복에 비견할 때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전혀 주시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에 모두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둘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에 비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 중 몇 가지만 나열하자면 죄에 대한 용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입양,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상속,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 등이 있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러한 축복이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축복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분과의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이 세상의 어떠한 좋은 것도 이 최고의 축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궁극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27 “So they will put my name on the Israelites, and I will bless them.”

First, we can see from these verses that God is the source of all blessings. Every blessing is preceded by “The Lord”, showing that it is the Lord who is doing the blessing, that all blessings flow from Him. All that we are, all that we have and are given in this life, they are all blessings from the Lord. As it says in James 1:17,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from above”. Sadly, many people tend to focus on their problems and issues instead of counting their blessings from God. I was once challenged by my mentor to start each day by counting at least 3 blessings in my life. He said it would change my attitude and outlook for each day and it certainly has! If we all took time to count our blessings as we started each day, we would realize how much we all have to be thankful for and also acknowledge that all of these blessings are from God.

The world has a very different idea and concept of the word “blessing”. The world equates blessings mostly in a material sense: money, possessions, fame, success etc. The problem with these blessings is that they are all temporary and small compared to the richness of the spiritual blessings that God has for us in Jesus Christ. Now, that doesn’t mean that God does not give us worldly blessings as well. He does, for God knows we need these things and so He provides all that we need. Notice, I said that God provides all that we need, not all that we want, which is something very different.

More than just worldly blessings, God has something much better in mind for His children. The spiritual blessings in Jesus Christ include forgiveness of our sins,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adoption as children of God, our eternal inheritance, being sealed with the Holy Spirit just to name a few and more importantly, these spiritual blessings are forever!

The greatest blessing that God has for all of us is Himself: His presence and having that personal and intimate relationship with Him. Nothing can take that away and

통해 복음의 은혜를 마음의 중심에 담을 준비를 하여  
나아오는 누구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구절들은 그분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거짓을 기반으로 한 기복  
신앙(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에 생략합니다!)이 말하는 돈, 소유물,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충만함과 풍성한 삶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와  
같이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선의로 대하신다고  
하지만, 이를 위한 기반은 순종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신실할  
때, 그분께서 주길 원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일련 속에서 반복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또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 자신의 것을 계속 붙잡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셔야 할 하나님  
한 분의 자리를 빼앗는 우상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겨울왕국의  
엘사와 같이 “이제 놔줄거야!”(다른 가사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시간 상 생략합니다)를 실천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정한 영적  
축복을 위해 우리 자신의 것을 내려 놓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빈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겸손히 올려  
드릴 때, 그분은 여러분을 위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 앞에 온전한 축복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 내려 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축복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축복을 받았습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며  
그분이 태초에 의도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가 복이 되어 그와 그의 가족을  
통해 온 세계 가족들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nothing in this world can come close or even compare  
to this greatest of blessings. This ultimate blessing is  
one He gives freely to all who come ready with a heart  
to receive the gospel of grace through Jesus Christ.

Secondly, these verses also reveal and show God’s heart  
and desire to bless His people. God wants to bless you.  
Not in the way that the fake prosperity gospel says  
with money, possessions and worldly success (don’t  
even get me started on the fake prosperity gospel or  
I’ll end up talking for hours on end!) No, God loves  
you so much that He has something much better  
and greater for you: God wants to bless you with all  
the fullness and abundance of life in Jesus Christ!

Now, some of us may be thinking, “Why isn’t God  
blessing me?”, “I feel like God is not blessing me”?  
There may be several reasons for this. The Bible  
tells us that God blesses us and pours out His favor  
upon us but that it is based on obedience. And that  
makes sense! We must obey and be faithful to God  
to receive the blessings He wants to give us. Are you  
living in continual patterns of sinful behavior that  
is preventing you from receiving God’s blessings?

Also, there may be times when we are holding onto  
things in our lives and we’re unable to receive what  
God wants to give us unless we let those things go.  
These things may represent idols that are taking up  
residence in our heart where only God should be.  
As Elsa sings in Frozen, “Let it go!”(the other lyrics  
in that song are a bit more problematic but that is  
a discussion for another time). In other words, we  
must let go of these things for the greater spiritual  
blessings that God has in store for us. Empty your  
hands so you can humbly raise your empty hands  
to God and He will fill them up with His blessings.  
Are there idols in your life that you need to lay down  
before God to fully receive what He wants to give you?

Lastly, God wants to bless us so that we can be a  
blessing to others. We have been blessed to be a  
blessing. That was God’s heart and desire from the  
very beginning. In Genesis 12, God told Abraham that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실 때, 그것이 넘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축복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의 축복을 꼭 쥐 채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될 수 있는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말씀은, 본질적으로 열방에게 축복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좋은 소식으로 온 민족을 축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지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곳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할 사람들이 주변에 실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주체이십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은 대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 한 사람을 축복하도록 오늘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이대로 실천한다면, 매일 축복한 한 사람이 연말에는 365명이 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그 기간 동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존재이며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탄절이 다가오는 요즘, 여러분이 축복할 수 있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이 계절의 이유이시며 이 계절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의와 축복을 계속 경험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시간을 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He would bless Abraham, make of him a great nation so that he could be a blessing, so that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would be blessed through him and his family. God blesses us abundantly so that out of that abundance, we can bless others. Sadly, too often, we hold onto our blessings and do not fulfill our calling to become a channel of God's blessings to others.

When Jesus gave his disciples the Great Commission t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he was in essence telling them to be a blessing to the nations. Bless the people of all nations with the love and good news of Jesus Christ. And that is what Jesus is commanding all of us to do today. If you take a good look around to where God has placed you, you will see that there are so many people in your spheres of influence who need to experience God's blessings. And God wants to use you to be His channel and vessel of blessing for them. So in quick summary: God is the Blessor. We are the Blessed. We are blessed to be a blessing to the world.

I want to challenge all of you today to bless one person everyday. If you do that, just one person a day, by the end of one year, you will have blessed 365 people. How amazing is that! Even during those times when we may be going through difficult and trying times, we still can remember how blessed we are and be a blessing to others. Especially with the Christmas season coming up, won't you think of someone whom you can bless today?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And that season is always a time to bless others. I pray that all of you continue to experience God's favor and blessings and take the time to be a blessing to someone today, amen.

# HIS Spotlight



**임수임 | Ms. Su Im Lim**

진로진학 상담교사 • Guidance Counselor

## Q. 자라온 배경과 HIS로 오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Please share your background and how you came to HIS.**

저는 초등학생들을 비롯해 많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어티칭의 계기를 통해 오랜시간 학생들을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만나오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진로라는 분야로 한동글로벌학교에 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청소년 시기의 많은 고민의 귀결점이 진로와 입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발견해가는 과정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I have taugh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 believe God has led me to meet students by learning how to teach English. While meeting students I wanted to help them during their growth and am grateful to join HIS in the guidance team, because it seemed to me that many of the worries students have during their youth ultimately leads to their career and college admissions, etc. I am happy to be of help to students finding themselves.

## Q. 선생님이 하시는 일과 이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어떤 것인가요?

**What kind of work do you do and what do you expect through it?**

저는 진로진학교사로서 학생들이 깨닫지 못한 잠재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한사람 한사람에게 품으신 뜻과 꿈을 이루어 가는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조차 경쟁을 통한 상대적 평가에 짓눌리기 쉬운 아이들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평가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길 바랍니다.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하루종일 경험하는 것이 세상이며 세상의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고 때론 그런 하나님 자녀의 삶이 벅차고 힘겨울 때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형제, 자매를 얻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한동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믿음의 실재를 배워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As a guidance counselor, I would like to help students find their potential and given talents to fulfill the dream that God has planned for each one. Sometimes even in Christ, students suffer due to standards based on comparison. This is why I hope that the absolute evaluation by God becomes the core value of students. Though the experiences of a day may be set by the patterns of the world, a child of God is to live by the will of the Lord in the world. I believe having fellow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to pray and support for each other along the way is a powerful blessing. I hope to help students learn to put their faith in reality in HIS.



둘째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교를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시과정 정보를 얻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능력을 계발하고 펼쳐가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대학들을 발굴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들 각자의 여건과 능력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돕고 싶습니다. 점수로 자신을 나타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입시가 아니라 우리학교 학생들의 넘치는 열정과 에너지가 입시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Secondly, I plan to continue research on information and helpful resources for students to apply for the university they seek to go to. Also, by gathering more useful information about overseas universities, I hope to guide and recommend better options that could highlight the gifts of each student within their conditions. With the overflowing passion and energy of students, I am seeking to find ways of reflecting them in the process of their admissions, apart from academically high grades.

## Q.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눠주세요.

### Do you have any prayer requests?

해외대학의 경우, 장학금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직접 요청하고 있지만 국제학생들의 지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보다는 대학교에 대한 매뉴얼화 된 정보만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외대학들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학생들의 실질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무엇보다 지금의 12학년들과 11학년들이 좋은 결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It is difficult to get information about scholarships for overseas universities. Although we are making a direct request to universitie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only manual information about a university is received, rather than information that is directly helpful for international students' application. Please pray...

- That I receive more specific information and opportunities regarding overseas universities.
- For the situations during research that supports finding practical ways for students to choose.
- That current 12<sup>th</sup> and 11<sup>th</sup> graders can make a new strong start with good results.

# General News

## 교직원 연수

Professional Development Sessions for Faculty and Staff

## 2022-2 HIS Parents T-Time

## Merry Christmas!

## 교직원 리뷰데이

Faculty & Staff Review Day

## 교직원 연수

Professional Development Sessions for Faculty and Staff



## 학교 폭력 교육 |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By 윤 관 | 학교 폭력 담당 교사

Mr. Kwan Yoon · Teacher in Charge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들(물리적/성적/정신적/따돌림/사이버)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방안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Faculty and staff had an education session on situations of school violence that could happen in school and how to prevent it. We covered the definition, types (physical / sexual / mental / bullying / cyber-bullying), and prevention guidelines.

## 성희롱 예방 교육 |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By 이지원 | 보건 교사

Ms. Jiwon Lee · School Nurse

2022년도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서로 안전한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토대로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교직원들이 참여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We held an education session on sexual harassment, sexual abuse, and prostitution prevention for faculty and staff. To develop a safe environment for students and staff and faculty in the school, we went through articles of the law with examples based on actual events, which helped everyone listen more carefully.



## 2022-2 HIS Parents T-Time

이번 학기에 박혜경 전임교장과 권수경, 배마리아, 배선화, 신수진, 우경아, Grace Lee 학부모로 구성된 총 7명의 멘토 그룹에 신청한 학부모님들과 HIS Parents T-Time 모임을 가졌습니다. 심화반 박혜경 멘토 그룹은 '가르침과 배움의 영상'을, 우경아 멘토 그룹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상'을 교재로 운영하였고, 기초반 권수경, 배마리아, 배선화, 신수진 멘토 그룹은 '기독교학부모교실'을 교재로 진행하였습니다.

This semester, HIS Parents T-Time was formed in seven groups with the following mentors: preceding principal Dr. Hae-Kyeong Park, Ms. Soo Kyeong Kwon, Ms. Maria Bae, Ms. Seon Hwa Bae, Ms. Sujin Shin, Ms. Kyung A Woo, and Ms. Grace Lee. The textbooks used were: For advanced groups, *To Know As We Are Known: Education As a Spiritual Journey* in the group by Dr. Park and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 in the group by Ms. Woo; *Classroom for Christian Parents - A Journey toward God-Pleased Education* in basic groups led by Ms. Soo Kyeong Kwon, Ms. Maria Bae, Ms. Seon Hwa Bae, and Ms. Sujin Shin.

## 멘토 그룹별 진행 | Group Mentoring Program





## 수료식 | Closing Ceremony

12월 14일, 채플에서 22-2학기 T-Time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심화반 9명과 기초반 17명으로, 총 26명의 학부모님이 수료하였습니다.

On December 14<sup>th</sup>, the 22-2 T-Time closing ceremony took place at HIS chapel. In total, 26 parents completed, with 9 parents in the advanced groups and 17 parents in the basic groups.



## 간증문 | Testimonial

By 강은근 (우경아 멘토 그룹 수료) | 7B 이소리, 9B 이용희 학모

Ms. EunGeun Kang (Completed the group led by Ms. Kyung A Woo) · Mother of 7B Sori Lee and 9B Yonghee Lee

지난 8월 기독 학부모 교실 기초반을 수료하면서, 믿음의 어머니들과 공통된 주제로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현실적 부분에 대한 나눔을 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도움 받으며 한 층 성숙해가는 시간들로 채워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은혜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고자 이번 2학기에도 티타임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진행하고, 마치는 모든 순간 순간들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은혜로 우리 공동체를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습과 배경이 모두 다르지만, 크리스천 학부모로 온전히 서기 위한 같은 목적으로 믿음의 궤도를 향해 달려 가기 위해 모인 그 자리, 그 시간에는 온전히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신앙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으로 일치된 우리였습니다.

익명의 학부모 중의 한 명으로써 오가다가 학교 행사에서 드물게 마주치며 간단한 눈웃음과 목례로 지나쳤을 우리 기독 학부모들이 T-Time을 통해서 서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삶과 신앙을 나눈다는 것은 교회생활과는 또 다른 신선한 생명 밭줄(믿음의 로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T-Time 신청기간을 놓쳐서 자녀의 같은 반 학부모님의 소개로 멘토님이 누구신지, 교재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른채 은혜의 자리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결단부터 하고 마인드 셋 없이 맨 몸으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과, 우경아 멘토님, 함께 한 허윤정, 김영옥, 김수정 학모님들처럼 귀한 분들을 만나 보면서, 무엇 하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T-Time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우리의 육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마음)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사실과, 믿음과 신앙으로 감추어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 안에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어린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한 우리의 마음이 말이지요. 한 주, 교재의 다음 챕터를 단계별로 나갈 때 마다 정서적으로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뤄가심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자리에서 들었던 멘토님의 삶에서 우리나라는 진국과 같은 지혜로운 삶의 조언들과

While completing the basic course of HIS Parents T-Time last August, we, mothers in faith, shared practical matters on raising children, encouraged and helped each other, and grew throughout the course. I applied for an advanced course in the 2nd semester to fasten the knot of grace and keep on going, and experienced God's guidance and goodness that filled our community with grace. Though we each had different backgrounds, when we gathered with the same purpose to stand firm as Christian parents, we were united as we fought our battles together while rooted in our lives.

It seems that as we open our hearts to and share our lives and faith with other parents of HIS, who would have been strangers passing by when we met at school events, is another type of a fresh life, as in a 'rope of faith' apart from church.

As anonymous parents, we, Christian parents, who would have rarely met each other at a school event and passed by with a simple eye smile and nod. But, as we share who we really are and our lives and faith with other parents of HIS through T-Time, it seems that we become a fresh life rope (rope of faith), different from our lives at church. I was introduced to T-Time by another parent of a child in my child's class, but I missed the application date, which left me clueless of who the mentors were and what the textbooks were, yet I was determined to learn upon God's prepared grace. The textbook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 Mentor Ms. Kyung A Woo, as well as wonderful HIS mothers Ms. Yoonjung Heo, Ms. Young Oak Kim, and Ms. Su Jung Kim led me to realize how there was not one single part that God had not planned beforehand. We had not met by chance.

For this semester, I learned that not only our body but also our emotions(heart) were made in God's image, and I encountered the fragile aching heart hidden inside our faith - the heart which was created out of His image. Each week, as we proceeded from chapter to chapter, I could feel God handling the overlooked parts

조원들의 귀한 나눔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2학기 T-Time의 공식 =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 + T-Time 시간을 통한 신앙의 나눔 + 교재 공부였습니다. T-Time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내 자아의 깊은 정서적 부분까지 섬세하고 깊게 다루고 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인생의 전 과정을 돌이켜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다음 T-Time 과정에도 꼭 있어야 할 과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아픔을 고치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아픔 속에서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정서도 오랜 세월 그 아픈 패턴을 반복할 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말라 회복되었던 것처럼, 믿음의 학부모로 단단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을 회복하고 영혼육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들이 건강해지기 위해 예수님의 다루심을 꼭 받아야 될 것입니다.

기독 학부모로 걸어가는 이 여정을 T-Time을 통해서,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티타임'이라는 영적 차 한 잔을 마시게 해주시는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 주님과 HIS 믿음의 공동체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HIS Parents T-Time은 차 맛집입니다. 맛있는 커피 한 잔 감사합니다.^^

of our emotions step by step. Also, I have no choice but to confess that I experienced God who speaks through human lips from the genuine advice from mentor Ms. Woo and personal stories shared by other members.

The formula of 22-2 T-Time = Spending time with God + Sharing faith in T-Time + Studying the textbook. I experienced God delicately going through the deepest parts of myself, including the inner emotions that are easily overlooked. It was a time to look back at my whole life. I strongly think that this should continue to be an essential part of the T-Time course. Just as the woman with a hemolytic disease suffered for years in pain, we may also have a pattern of an aching heart inside our emotions. We must seek Jesus to handle our whole self in physical, mental, spiritual realms and gain health, to recover God's image as a faithful parent, like when the woman's bleeding had stopped when she met Jesus.

I express my gratitude to the Lord and our HIS community for providing such a meaningful opportunity to grow as a Christian parent through T-Time, connecting with faithful fellow parents, and sipping a cup of spiritual tea together. HIS Parents T-Time is a renowned cafe. Thank you for the delicious cup of coffee.^^







**Merry Christmas!**

By 백하민 | 교장  
Dr. Hamin Baek · Principal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성탄절의 본래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하여 몇몇 어머님들께서 귀한 시간과 달란트를 사용하여 함께 학교의 여기저기에 성탄 축하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왕의 탄생을 알린 별이 달린 나무,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재활용하여 생생하게 구현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장면, 그리고 “Jesus is Our Hope”이라는 메시지와 선물들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성탄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섬겨주신 어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n order to clearly reveal the original meaning of Christmas, which commemorates the incarnation of our Lord, several mothers spent their valuable time and talents together decorating various places in the school to celebrate Christmas. Through a tree with a star that announced the birth of the king of the whole world, the scene of the birth of baby Jesus vividly realized by recycling fallen tree branches, and the message “Jesus is Our Hope” and presents, we can think about Jesus Christ, the owner of Christmas, once again. Thank you greatly to the mothers who served!

## 교직원 리뷰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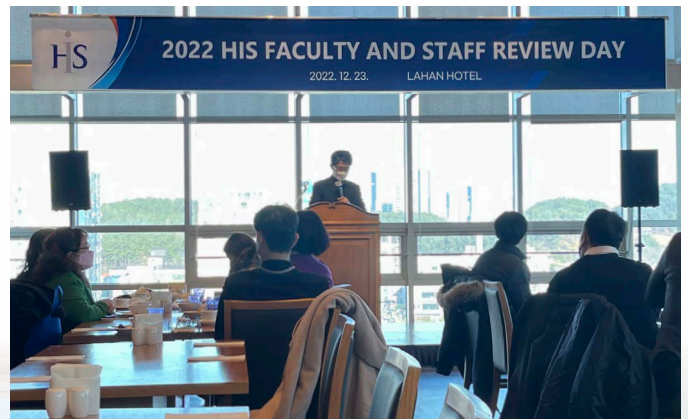
### Faculty & Staff Review Day

지난 12월 23일(금) 종업식과 졸업식 후에 교직원은 포항 라한 호텔에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한 해를 정리한 영상을 시청한 후, Andrew Kim 선생님, 정명실 선생님, 이희정 선생님의 소감을 듣고, 교장 선생님의 말씀 및 기도로 마쳤습니다. 2022학년도에 수고하신 교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By 김진실 | 대외협력

Ms. Jinsil Kim · External Relations Specialist

After the closing ceremonies and graduation ceremonies on December 23rd (Friday), faculty and staff had a time to wrap up the year at Lahan Hotel, Pohang. After watching a video summarizing the year while having lunch together, we listened to Mr. Andrew Kim, Ms. Myeongsil Jeong, and Ms. Heejeung Lee, and concluded with the principal's message and prayer. Thank you to all the faculty and staff members of HIS who have served faithfully in 2022!



HS

2022 HIS FACULTY AND STAFF REVIEW DAY

2022. 12. 23.

LAHAN HOTEL



# ES News

## 학교폭력 예방 교육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 HIStory Night

## 6학년 졸업식

6<sup>th</sup> Grade Graduation Ceremony



## 학교폭력 예방 교육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By 박에스터 | 초등 디렉터

Ms. Esther Park · ES Director



12월에 '사랑을 배우다' 센터의 이은혜 강사님이 학년별로 4차례의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타인의 감정을 느껴보며 다양한 소통 기술들을 연습하도록 직접 실습함으로써 의미 있는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In the month of December, instructor Ms. Eunhae Lee from '사랑을 배우다 (Learn Love)' center came to each grade 4 times each to teach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s. Elementary students had meaningful hands-on lessons to learn about the emotions of others and self and practice various communication skills.

# HIStory Night

By 박에스더 | 초등 디렉터  
Ms. Esther Park · ES Director



12월 9일 저녁, 학생과 교사, 가족들이 모두 모여 우리 학교 채플에서 HIStory Night 행사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올해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해 동안 수업을 통해 배운 다양한 것들을 발표하는 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그림을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주제로 한 스킷을 준비하여 선보였습니다. 비록 추운 밤이었지만, 학교로서 학생, 교사, 가족들과 함께 HIStory Night을 통해 예배를 올려 드릴 수 있어 모두의 마음만은 따뜻하게 채워졌습니다.

On the evening of December 9<sup>th</sup>, students, teachers, and families gathered at HIS chapel for HIStory Night. It was a night to celebrate the birth of Jesus and also to present the lessons elementary students have learned this year. Students sang songs, danced, drew pictures, chanted Bible verses, and prepared skits on the theme of parables of Jesus. Even though the night was cold, our hearts were filled with warmth as we offered HIStory Night as a worship service as a school with all the students, teachers, and families.





## 6학년 졸업식

### 6<sup>th</sup> Grade Graduation Ceremony

12월 23일, 우리 학교 초등학교 과정에서 수학을 완료한 19명의 학생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졸업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간직하고 함께 지낸 추억들을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한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하나님의 축복 받는 자녀임을 잊지 말고 항상 지니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By 박에스더 | 초등 디렉터

Ms. Esther Park · ES Director

Elementary had time to bless our 19 students who completed their studies in the elementary division on the last day of school, December 23rd. We pray that our graduates will remember the lessons they have learned and cherish the memories they made with friends and teachers. Congratulations on all your hard work and please keep in your heart that you are a blessed one by God!



# MHS News

## 브랜드 발표 대회

Brand Presentation Contest

## 12학년 연탄 후원 및 배달 봉사

12<sup>th</sup> Grade Briquette Donation and Delivery

## SKAC | 모의 유엔

SKAC Model UN

## 7학년, 10학년 진로 프로그램

Guidance Programs for 7<sup>th</sup> and 10<sup>th</sup> Graders

## 12학년 감사음악회 [Encore'22]

12<sup>th</sup> Grade Thanksgiving Concert [Encore'22]

## 2022 버라이어티쇼 '새 부대'

2022 Variety Show 'The New Wineskins'

## 종강식

Closing Day Ceremo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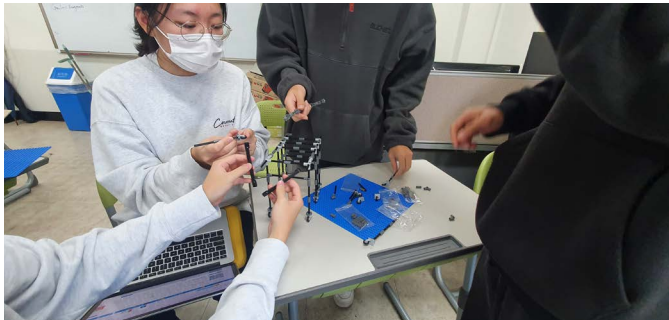
## 9, 12학년 졸업식

9<sup>th</sup> and 12<sup>th</sup> Grade Graduation Ceremony

---

## 브랜드 발표 대회 Brand Presentation Contest

By 이은규 | 중고등 진로부장  
Mr. Eunkyuu Lee · MHS Guidance Team Leader



지난 11월 21-22일, 브랜드 발표 대회가 있었습니다. 각 팀마다 '우리 브랜드는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목적을 바르게 세우고, 이를 위해 자신들의 상황에서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목적에 맞는 활동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발표하는 대회입니다. 브랜드의 목표, 활동, 파급력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였고 전교생 중 총 9팀이 수상하였습니다.

On November 21-22<sup>nd</sup>, there was a Brand Presentation Contest. The contest aims to encourage students to set the purpose with the question 'Why do we need this brand?,' find the right activities for the purpose, and act according to it using their given resources. This year 9 teams won in the contest, based on the evaluation criteria as the goal, activities, and impact of the brand.

## 12학년 연탄 후원 및 배달 봉사 12<sup>th</sup> Grade Briquette Donation and Delivery

By 윤영실 | 중고등 학생부장  
Ms. Young Shil Yun · MHS Student Life Team Leader

12학년 학생들이 마지막 기말고사를 마치고 "배워서 남주자!"라는 모토를 실천하기 위해 연탄을 배달하고 왔습니다. 작년 버라이어티쇼 때 모금 활동한 92만원을 연탄 은행에 기부하고, 1800장의 연탄을 6군데 독거노인 댁에 300장씩 배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구매하고 포장한 생필품 박스를 전달하고 축복송도 불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학생들의 수고로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12<sup>th</sup> grade students delivered briquettes after their final exams based on the motto, "Learn to give!" We donated 92 million won, the fund from last year's Variety Show, to the Briquette Bank and delivered 1800 briquettes, 300 to six elders living alone. We also had a time to deliver boxes of daily necessities that we purchased and wrapped ourselves and sing a blessing song. We hope the love of Jesus is delivered by the work of students!





## SKAC | 모의 유엔

### SKAC | Model UN

지난 12월 10일 토요일, 국제 관계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광주에서 다른 학교들과 함께하는 연례 SKAC 모의 유엔에 참석하였습니다. 안전보장 회의, 인권, 경제 및 사회, 총회, 총회 2의 5가지 위원회로 구성되어 각 위원회는 학생들이 미리 준비한 3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지정된 나라의 대표 역할을 하며 해당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한 안전보장 회의에서부터 개발도상국의 기술 개발까지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해결책을 놓고 논의하며 제시된 방법들이 실현 가능한 지 또는 바람직한 지에 대하여 토론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다른 학교의 학생들의 의견과 영어 수준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학생들에게 도전이 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돌아온 후 유익한 경험을 얻었음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기며,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합니다. 국제 관계 수업을 통해 교실에서 배웠던 학생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1년 간 배운 내용을 마무리 짓기에 적합한 경험이 됩니다.



By Mr. Tim Northe

중고등 사회 교사 · MHS Social Studies Teacher

On Saturday, December 10<sup>th</sup>, the International Relations class went to Gwangju to meet with other SKAC schools for the annual SKAC Model UN(MUN). There were 5 different committees: Security Council, Human Rights, ECOSOC, General Assembly and General Assembly 2. Each committee had three topics that students had researched before coming. Each student played the role of a delegate from a designated country and then debated the topics. The topics this year ranged from the Ukraine-Russian War in the security council to how to improve technology in classrooms in developing nations. Students talked about solutions and then debated whether these solutions are feasible or desirable.

For our students, it is a good chance to see what other schools' students are like and what their English level is. They find it challenging but most students come back having had a positive experience and regretting that they didn't get more involved. It is a good way to finish off the things we have been working on all year in International Relations class and to put into practice what has been learnt in the c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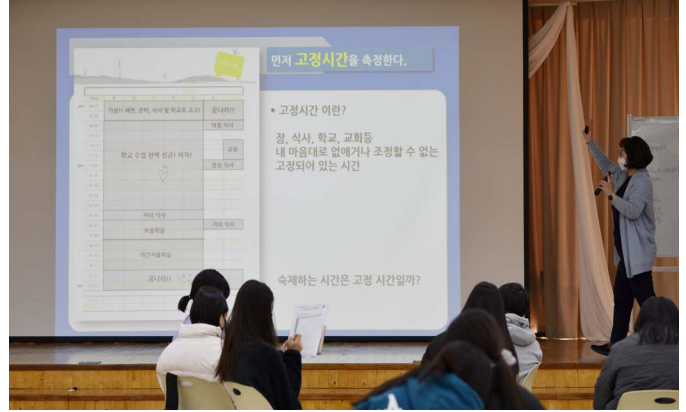


# 7학년, 10학년 진로 프로그램

## Guidance Programs for 7<sup>th</sup> and 10<sup>th</sup> Graders

By 이은규 | 중고등 진로부장

Mr. Eunkyu Lee · MHS Guidance Team Leader



이번 진로 프로그램은 중학생 7학년과 고등학교 10학년 중심으로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7학년 학생들은 나만의 진로설계와 연결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급변하는 시대에 진취적으로 진로 탐색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미래 직업을 창작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창의적 사고와 통찰력을 키울 수 있으며, 미래 직업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비전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학년 학생들은 공부습관의 4가지 방법을 검사와 함께, 결과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며, 가장 기본이 되는 플래너 활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The guidance programs for 7<sup>th</sup> and 10<sup>th</sup> graders were held with the suppor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7<sup>th</sup> graders each searched their future by connecting the dots of their career plan with the changing era according to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and had time to create a new job based on their interests and aptitude. They were able to gain new insight on the future world of careers. 10<sup>th</sup> graders learned about studying tips and by interpreting the results, they traced methods of studying and sought to find their own, with the most basic way to use time effectively by writing a planner.



## 12학년 감사음악회 [Encore'22] 12<sup>th</sup> Grade Thansgiving Concert [Encore'22]

By 고은진 | 졸업생  
Ms. Eunjin Ko · Graduate

12월 16일(금), 12학년 음악 수업을 중심으로 12학년 학생들이 감사찬양음악회 [Encore '22]를 진행했습니다. 길고도 짧았던 '고3 시기'를 모두 마치고 한동글로벌학교에서의 추억과 감사를 담아 그동안 곁에서 도와주신 선생님,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박소울 외 6명의 '어둔날 다 지나고(위러브)'로 시작하여 박찬 외 7명의 '멈출 수 없네'로 마무리했습니다.

On December 16<sup>th</sup>(Fri), 12th graders hosted a Thanksgiving Concert [Encore '22] within Music class. We planned to show our gratitude for completing the '3rd Grade in High School' in HIS, filled with many memories with teachers, parents, and God, who always accompanied us. The concert started with Soyul Park and 6 other students' 'After the Dark Days(WELOVE)' and finished off with Chan Park and 7 other students' 'Can't Stop Loving You.' At the end of the concert, we had a short event singing

# Encore'22



음악회를 마친 후,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부르며 꽃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음악회를 준비하는 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 함께 응원하며 격려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한동의 공동체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세계 각지로 흩어져 대학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더욱 성장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the Teacher's Grace song to teachers with gifts of flowers. There were times that it took a lot of effort while preparing for the concert, but it was once again a time to be thankful of the HIS community, with friends encouraging and rooting for each other. Also, it was a meaningful time to bless each other on heading to the next step, spreading out to colleges/universities across the world.



새 부대가 되게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Let us be the new wineskins  
And shine Your light

## 2022 버라이어티쇼 '새 부대'

### 2022 Variety Show 'The New Wineskins'

By 서지훈 | 중고등 학생디렉터

Ms. Ji Hoon Suh · MHS Student Life Director



Full Video

<http://bit.ly/3VrM8OX>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중고등 버라이어티쇼 행사가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지난 12월 21일(수) 한동대학교 효암채플에서 열렸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하는 12월, 그동안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끼와 재능을 통해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각자의 영상물을 만들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학교 공동체 전체가 하나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영상, 펀드레이징, 홍보, 데코레이션, 의상 소품, 학년 리더 등 11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종합예술공연인 버라이어티쇼의 올해 주제는 '새 부대 The New Wineskins'로 올해 학교 전체 주제인 'Renew Our Mind!'와의 연장선 상에서 공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11학년 뮤지컬 공연이 함께 무대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한번 더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도 함께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펀드레이징에서 얻은 수익금은 여성소망센터와 그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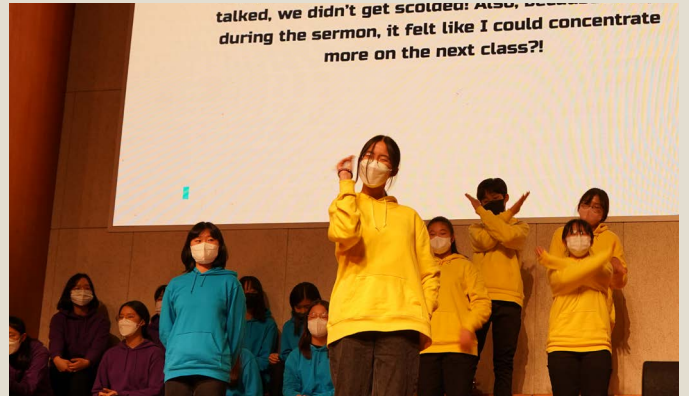
우리 한동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학생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 단단한 '새 부대 The New Wineskins'로서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The Middle and High School Variety Show was presented in Hyoam Chapel(HGU) on December 21<sup>st</sup>(Wed), after 3 years of online airing due to the pandemic.

Looking back and wrapping up 2022 during December, we experienced the HIS community becoming one together by worshipping the Lord, with gratitude of His grace poured out among the 7<sup>th</sup> to 12<sup>th</sup> graders, each grade preparing a video along with various performances by God-given-talents, according to Romans 12:2. This year, the Variety Show, a comprehensive art performance, planned and hosted by 11<sup>th</sup> grade students grouped in Media, Fundraising, Advertisement, Decoration, Uniform & Props, Leadership teams, had the theme 'The New Wineskins,' an extension of our school's theme 'Renew Our Mind!'. Especially, 11<sup>th</sup> grade students reminded the audience of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with their musical performance. The profits of fundraising are planned to be donated to the Hope Center and other isolated neighbors.

I sincerely hope that our HIS students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s of this world, overcoming hardships throughout their lives by faith, being distinguished from those who do not believe in Jesus, to be joyfully used as God's powerful 'New Wineskins.'





## 종업식 Closing Day



2022-2학기 종업식이 12월 23일, 9시40분에 중고등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 채플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한 학기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표하고 수고한 친구들과 서로 격려하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다독상, 올해의 풋살 및 배구 선수상, 교과우수상, 우수멘토상, 역량향상상, 모범상, 교장추천상, 포항시장상 등을 단상에서 백하민 교장선생님이 직접 수여했습니다. 친구들이 수상하는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어 훈훈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어 최세연 교무디렉터님과 서지훈 학생디렉터님이 의미있는 방학을 맞이하도록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이희정 사서 선생님과 이지원 보건 선생님이 도서관 활용방법과 코로나 주의사항 등 생활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종업식을 마친 후 전교생은 곧바로 효암채플에서 열리는 졸업식에 참석해 선배들을 축하했습니다.

On December 23<sup>rd</sup> at 9:40 am,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closing ceremony. We shared our gratitude for ending this semester in God's grace and patted each other on the back. Next, awards were given by Principal Dr. Hamin Baek for Reading Excellence, SKAC Futsal and Volleyball, Subject(for each grade), Mentor, Most Improved, Role Model, Principals, Pohang Mayors, etc. The chapel was warmed up with joyful cheering, complimenting each other. Then, Academic Director Ms. Sei Yeon Choi and Student Life Director Ms. Ji Hoon Suh each gave a message encouraging students to have a meaningful vacation, followed by notice for the library from Librarian Ms. Hee Jung Lee, and COVID-19 prevention guidelines by Nurse Ms. Jiwon Lee. Finally, all students attended the graduation ceremony for 9<sup>th</sup> and 12<sup>th</sup> grade graduates held at HGU Hyoam chapel.

# 9, 12학년 졸업식

## 9<sup>th</sup> and 12<sup>th</sup> Grade Graduation Ceremony

By 최세연 | 중고등 교무디렉터  
Ms. Sei Yeon Choi · MHS Academic Director





2022학년도 중고등학교 졸업식이 효암채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졸업생 조차도 집에서 온라인 졸업식을 진행했었던 최근 몇 년의 상황이 있었기에 올해는 전교생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친지들을 모시고 졸업식을 진행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9학년은 중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고등학생으로의 진급, 12학년들은 이제 한동을 떠나 더 큰 세상으로의 파송의 의미가 담긴 이번 졸업식에서는 9학년 강다연, 12학년 홍윤 학생이 한동에서 보낸 지난 날의 감사와 함께 앞으로의 기대와 다짐을 각 졸업 학년을 대표한 졸업연설을 통해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새로운 곳을 향해 도전하는 12학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한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The 2022 Middle and High School Graduation Ceremony was held in Hyom Chapel(HGU). It was a blessing to be able to have a ceremony with families gathered, considering the past few years, having it held online. 9<sup>th</sup> grade graduates completed middle school headed to high school, while 12<sup>th</sup> grade graduates have been commissioned to a bigger world outside. Representatives Dayeon Kang(9A) and Ian Yoon Hong(12A) gave a speech for each grade on sharing gratitude for their days in HIS, with expectations and resolutions for the next step. We sincerely bless 12<sup>th</sup> grade graduates to keep their identity as a 'Handongin' and a Christian onward, wherever they are headed to.



# Dormitory News

## 생활관 스케치

Sketch of Dormitory

## 교장선생님 방문

The Principal's Visit



지난 8월 30일(화)부터 9월 2일(금)까지 교장 선생님께서 핫도그와 야채과일 주스 간식을 가지고 하루에 한 관씩 방문하여 학생들을 격려하며 권면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은 축복송으로 보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 주일 열린예배

Sunday Open Worship Service



12월 18일(주) 올해의 마지막 생활관 자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간사님의 조력자로 공동체를 섬겨준 총장과 부총장들에게 예쁜 텀블러를 선물하였습니다. 김도경 간사님의 리더십으로 생활관 자치 주일예배를 신실하게 섬겨준 예배 준비팀 멤버들은 한 해의 임무를 완수하고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By 김경란 | 생활관장

Ms. Kyeong-Lan Kim · Dormitory Director



From August 30<sup>th</sup> (Tue) to September 2<sup>nd</sup> (Fri), principal Dr. Baek visited one dorm each day, with hotdogs and vegetable fruits juice snacks, consoling students with a message of encouragement. Students showed their gratitude by singing a blessing song to him.



On December 18<sup>th</sup> (Sun), we had the last Sunday open worship service for this year. Each leader and vice leader of the floor, who helped dorm parents, received a pretty tumbler. After Praise Team members completed their mission of sincerely serving the Sunday service this year, they took a last shot with the leader Mr. Dokyoung Kim.



## 방과후 절대학습

### After School Study Time (Mandatory)



절대학습이란, 선택의 여지없이 절대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으로 생활관생들은 평일 밤시간에 핸드폰을 반납하고 간사님의 관리 감독하에 자율학습을 합니다. 학습 외 미디어 접속 사용 시 벌점을 받게 되고 친구에게 학습을 도와주는 경우는 상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대학습 관련 규정을 기준삼아 질서로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함께 협력을 하였습니다.



Study Time is a time where students are required to study mandatorily after returning their phones under the direction of each dorm parent. If they use media for uses other than studying, they get penalty points, and reward points if they help their friend study. Students cooperated by abiding by the rules to maintain an orderly studying atmosphere.

## 커뮤니티 성경읽기와 묵상나눔

### Community Bible Reading and Sharing Meditation



매일 저녁 7시 거실에 모여 하루 세 장씩 성경 원문을 소리내어 읽은 뒤, 월간 큐티집 본문도 함께 읽고 묵상노트를 하며 자발적 나눔을 하였습니다. 믿음2관은 12월 23일 방학식 전 날 드디어 구약, 신약 성경 전체를 완독하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파티를 하며 서로 격려하고 축하했습니다.

We read three chapters of the Bible out loud every afternoon at 7 pm, along with the quiet time passage, and shared each meditation voluntarily. Faith 2nd dorm finally finished the whole Bible on December 23<sup>rd</sup>, encouraging each other by celebrating with an ice cream party.

## 기독교공동체 영성과 실천

### Christian Community Spirituality and Practice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교육은 실제 생활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훈련함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 엄격한 관리와 공정한 체크로 공동체 규칙을 준수하도록 훈련하는 상벌점제를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시민교육과 실천훈련에 임하였습니다. 올해의 상점 최고자로 모범상 수상자는 1학기 9전영은, 9김의양, 2학기 11엄리나, 11이찬희 입니다.

It is crucial for Christian spirituality to be practiced in actual life situations. Dorm parents managed the penalty and reward points system to start with, progressing with strict orders and fair scores to keep the community in safe balance. Students participated in civic education by not harming anyone. This year's role model awardees are : Youngeun Jeon(9B) and Euiyang Kim(9A) for spring semester, Lina Um(11C) and Chanhee Lee(11C) for fall semester, selected by highest reward points.

# Counselor's Office News

## 크리스마스 카드와 캔디 전달

Christmas Cards and Candies Delivery

## 2학기 상담실 이수증 및 상장 수여 안내

Announcement for 2<sup>nd</sup> Semester Counseling Certificate and Award

## 크리스마스 카드와 캔디 전달

Christmas Cards and Candies Delivery

By 장정은 | 상담 교사

Ms. Jung Eun Jang · School Counselor



- 일시 2022년 12월 23일
- 대상 중고등부



- Date December 23<sup>rd</sup>
-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 2학기 상담실 이수증 및 상장 수여 안내

### Announcement for 2<sup>nd</sup> Semester Counseling Certificate and Award

#### 또래상담동아리 수료증 | Certificate of Peer Counseling Club

- 솔리언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 수료증 이수
- Solian Peer Counseling program certificate (advanced)
- 이수증 수료 기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Certificate institution: Korean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 우수 멘토 수상자 | Outstanding Mentor Winning Award

- 일시 2022년 12월 23일
- 수상자 김새미 (9A)
- 교내 시상
- **Date** December 23<sup>rd</sup>
- **Awardee** Sammy Kim (9A)
- Awarded in school

수상자   Awardee	학반   Grade and Class
강수하 · Suha Kang	11B
이주형 · Juhyeong Lee	11B
이준 · Jun Lee	12C
이혜선 · Hyesun Lee	12C



# Library News



Christian Books

영성도서

## 다독상

Reading Excellence Award

## 방학과제

Winter Vacation Assignments

## 방학 운영 안내

Winter Vacation Operation Hours

## 다독상

Reading Excellence Award

초등학교 | Elementary School

학생   Student	학년   Grade
이하윤 · Lina	6
신은애 · Eunae	6
한서준 · Joseph	6
이예서 · Sophia	5
윤시온 · Zion	5
이호은 · Hoeun	4
서상울 · Roger	4
신해민 · Haemin	4
송영신 · Yeongshin	3
여엘리 · Eli	3
현주은 · Sophia	3

학생   Student	학년   Grade
하리라 · Rira	3
정지현 · Hannah	2
손나윤 · Aria	2
박승 · David	2
김선율 · Seonyul	1
박시원 · Siwon	1
이아린 · Rina	1
이아인 · Daniel	1
김하은 · Haeun	1

## 중고등학교 | Middle and High School

학교급   School	등급(위)   Place	학생   Student	학년   Grade
고등 · High	대상(1위) · 1 <sup>st</sup> Place	유승주 · Seungju Yoo	11C
	금상(2위) · 2 <sup>nd</sup> Place	김은호 · Eunho Kim	12B
	금상(2위) · 2 <sup>nd</sup> Place	정서영 · Seoyoung Jeong	10A
	은상(3위) · 3 <sup>rd</sup> Place	이찬희 · Chanhee Lee	11C
	은상(3위) · 3 <sup>rd</sup> Place	김가빈 · Gabin Kim	10B
	은상(3위) · 3 <sup>rd</sup> Place	송욱찬 · Wookchan Song	11B
	동상(4위) · 4 <sup>th</sup> Place	정혜나 · Hena Chung	11B
	동상(4위) · 4 <sup>th</sup> Place	박서현 · Seohyeon Park	12B
	동상(4위) · 4 <sup>th</sup> Place	박지원 · Jiwon Park	12C
	동상(4위) · 4 <sup>th</sup> Place	이혜선 · Hyesun Lee	12C
중등 · Middle	대상(1위) · 1 <sup>st</sup> Place	김수하 · Suha Kim	7B
	금상(2위) · 2 <sup>nd</sup> Place	한서현 · Seohyun Han	7B
	금상(2위) · 2 <sup>nd</sup> Place	임소망 · Somang Lim	9A
	은상(3위) · 3 <sup>rd</sup> Place	이예나 · Yena Lee	8A
	은상(3위) · 3 <sup>rd</sup> Place	박건 · Kuhn Park	7A

학교급   School	등급(위)   Place	학생   Student	학년   Grade
중등 · Middle	은상(3위) · 3 <sup>rd</sup> Place	박글로리아 · Gloria Park	8A
	동상(4위) · 4 <sup>th</sup> Place	최한결 · Hankyul Choi	9B
	동상(4위) · 4 <sup>th</sup> Place	김새미 · Sammy Kim	9A
	동상(4위) · 4 <sup>th</sup> Place	김은수 · Eunsu Kim	9A
	동상(4위) · 4 <sup>th</sup> Place	백유진(B) · Eujin Baek	9B

## 방학과제

### Winter Vacation Assignments

By 이희정 | 사서

Ms. Hee Jung Lee · Librarian

### ‘밑줄 긋기’와 함께하는 방학 생활 | Winter Vacation with ‘Highlighting’

겨울 방학을 맞은 우리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건네시는 말씀은 귀에 닿아 흩어지지 않고 마음 속에 뿌리 내려 기대어 일어서게 합니다. 나태주 시인이 읊었던 “네가 너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고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에 밑줄을 그을 수 있다면 그리고 밑줄 사이로 스미고 번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긴 겨울 방학이 춥지 않고 따뜻하겠지요. 바로 이 문장이 예수님이 전해 주시는 가장 귀한 메시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밑줄 긋기를 돕기 위해 도서관에서는 ‘독서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겨울 독서는 영성 도서를 기본으로 다양한 장르의 모든 책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진로에 맞는 도서들을 탐색해서 읽으면 좋겠지요. 저마다의 밑줄로 진리의 꽃이 환하게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I bless our students who have started winter break. When God’s word reaches the ears it is not dispersed but roots within us and builds us up. If you can highlight the poem by Tae-joo Ra, “Because you are you, you are lovely and pitiful and eventually nailed deep inside the heart.” and allow someone to smear into your mind, the long winter vacation will not be too cold. I think this sentence conveys the most precious message of ‘love’ by Jesus. We have prepared ‘Reading Notebooks’ to help students highlight. This winter, we will start from books for spiritual growth and broaden to various genres. It would be helpful to read guidance books. I hope to see each highlight of your own blooming as the flower of truth.





열 권의 책을 읽고 독서노트를 써주세요.

Write 10 book book reviews.

다 읽고 독서노트를 가져와 사서 선생님에게 주시면

After you finish bring this reading notebook to the Librarian teacher

HIS 도서관 코코보코에서 선정하는 그 달의 책과

and receive a monthly book selected by the library,

새 독서노트를 소정의 선물로 드립니다.

a new reading notebook, with a prize.



천천히 혀끝으로 읽으며 밑줄을 그어보세요,

Read slowly by the tip of your tongue, and try underlining,

그리고 밑줄 사이로 스미는 사람이 있다면

If there is someone smeared underneath the line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that is the reason He has come to the world.

**HIS** 한동글로벌학교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Library,

코코보코와 함께 하는 책 읽기

Reading with Cocoboco



한동글로벌학교 도서관은 여러분의 독서를 응원합니다.

HIS Library encourages you to read.

한 줄의 문장, 한 권의 책이 시작입니다.

Each line, each book is a start.



## 방학 운영 안내

### Winter Vacation Operation Hours

새해에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고, 모든 가족이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 학교 도서관을 아래와 같이 개방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다만, 초등 과정 학생은 학부모님과 동행 시(도서 대출 및 반납에 한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방학 중 예습이 필요한 중고등 학생은 개방지정일에 방문하셔서 교과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Greetings, may each household be filled with God's grace, peace, and health in the new upcoming year.

The HIS library will be available for students over the winter vacation during specific hours. Please note th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must be accompanied by parents when using the library (whether for reading or borrowing book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may borrow textbooks during the following operating hours.

### 개방 기간 | Winter Break Operation Period

2023년 1월 10일 ~ 2월 9일 | 기간 지정일 (화, 목) 개방

- 오전 10:00 ~ 12:00, 오후 13:00 ~ 15:00
- 점심식사 시간(12:00 ~ 13:00) 미운영

Jan 10, 2022 ~ Feb 9, 2022 (Tue, Thurs)

- 10:00 - 12:00, 13:00 - 15:00
- Closed during lunch time (12:00 - 13:00)

### 개방 일시 | Operating Hours

- 1/10(화), 1/12(목) | 1/17(화), 19(목) | 1/31(화), 2/2(목) | 2/7(화), 9(목)

- Jan 10(Tue), 12(Thu) | Jan 17(Tue), 19(Thu) | Jan 31(Tue), Feb 2(Thu) | Feb 7(Tue), 9(Thu)

### 이용 방법 | Take Out

- 방문 대출

- Visit Library

### 문의 사항 | Contact

- 사서 이희정 (heejunglee@his.sc.kr)
- 도서관 054-260-1742

- Librarian Hee Jung Lee (heejunglee@his.sc.kr)
- Library 054-260-1742





# Nurse's Office News

## 건강 점검을 위한 좋은 기회! Opportunity to Check Your Health!



By 이지원 | 보건 교사

Ms. Jiwon Lee · School Nurse

시간이 여유로워진 방학, 평소에 반복되는 증상이 있던 학생은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하기 바랍니다.

- **치아우식증(충치)**은 치료를 해주시고, 심한 덧니나 주걱턱은 교정이 필요하므로 치과를 찾아 상담하여 방학 중에 교정 치료를 시작한다면 적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 **시력**이 어느 한쪽이라도 0.7이하인 학생은 안과를 방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안경을 쓰고 있는 학생은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아 정확한 교정이 되도록 합니다.
- **비만학생**은 방학 중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등으로 체중 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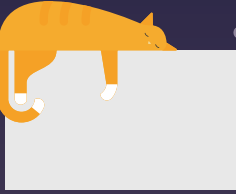
**During vacation, as you have more time, have a checkup at a hospital for a precise diagnosis for if you have had regular symptoms.**

- **Dental caries(cavity) treatment** is recommended. Also make an appointment with a dentist to start braces during vacation for misaligned teeth or protruding chin to adjust before starting school.
- Students with visual acuity of 0.7 or less on either side should visit an ophthalmologist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and are advised to have a **regular checkup by six months** for precise correction.
- Over/underweight students are to take care of their weight by having regular exercise, going on a diet, etc.

## 방학중에도 생체리듬을 유지해요 | Maintain the rhythm of your body during vacation

우리는 해가 뜨면 잠에서 깨고 밤이 되면 다시 잠이 듭니다. 이는 우리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 같은 생리적 현상이 비슷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생체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루를 주기로 반복되는 생활주기를 만듭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체리듬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e awaken when the sun rises and sleep when it sets. This is because we have a repetitive biorhythm that shows a similar physiological phenomenon at a certain time zone. They form a day and repeat as a life cycle. It is significant that we maintain our biorhythms for a healthy life.



### \* 잠을 충분히 잘 경우 우리 몸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What happens in our body when we have enough sleep?

- 식욕 조절로 건강 유지  
Health maintained by controlling cravings of food
- 기억력과 집중력 증가  
Memory and concentration enhanced
- 면역력 증가  
Immunity enhanced
- 기분이 좋아져 행복감이 듭  
Gives you a good mood and happiness

### \* 잠이 충분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 What happens when we don't have enough sleep?

-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음  
High possibility of becoming overweight
- 학습 능력이 떨어짐  
Learning ability decreased
- 면역력 저하  
Immunity decreased
- 우울함으로 충동적 행동 유발  
Depression which triggers compulsive actions



## 건강상태 자가진단 | Health self-diagnosis

방학 중에는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개학 1주일 전 다시 실시합니다.  
모두 방학 중에도 즐겁고 건강하게 알찬 시간되세요~

The self-diagnosis app is not required during winter vacation. We will start checking a week before the next semester. Have a joyful and healthy winter break!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HIS Connection  
Archive

2019 - 2021

<https://bit.ly/3v2RN43>

너희는 이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Romans 12:2





Renew  
Our  
Mind!